중국,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잇따라 발표

최근 중국 정부는 비유통주의 유통주 전환 촉진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금지하였던 상장기업의 신주발행과 신규주식상장(IPO) 등을 허용한 데 이어, 자본시장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주식교환방식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음.

■ 중국 정부는 국내 주식시장의 만성적인 침체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비유통주(전체 거래 주식의 70%를 차지)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비유통주의 유통주 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.

-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수급불균형 및 주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국 양대 증권거래소에서의 상장기업 신주발행 및 신규주식상장(IPO) 등을 금지해 왔음.
- 그러나 최근 비유통주의 유통주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에도 중국경제가 건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국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음.

■ 지난 5월 8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(CSRC)는 원활한 비유통주의 유통주 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작년 4월 이후 금지해 왔던 국내 상장기업의 신주발행을 전격 허용하였으며, 이와 함께 전환사채 및 여타 증권 발행 등도 허용하였음.

- 동 조치로 인해 최근 3년간 순이익 총액이 370만달러 이상인 상장기업은 직전년도 자본금 규모의 최대 30%까지 정부의 허가 60개월 이내에 주식시장에서 증자가 가능하게 되었음.
- 또한 부채 규모가 직전 회계연도말 순자산의 40% 이하인 기업은 만기기간이 1년에서 6년 사이인 전환사채의 발행이 가능해졌음.
-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자본금의 2배로 규정되어 있던 유상증자의 한도를 폐지함에 따라 향후 상장기업들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임.

■ 동 조치에 이어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주식시장에의 우량주식 공급 및 유동성 확대를 위해 지난 1년간 금지하였던 신규주식상장(IPO)을 허용하는 법안도 공표하였음.

- 동 법안에 따르면 순이익이 당초 예상치의 50%를 초과한 기업은 정부의 승인이 있을 시 IPO를 통한 자금모집이 가능하게 됨.
- 이와 함께 금융업을 제외한 업종에 대해서는 IPO 등을 포함해 주식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으로는 유가증권 매매와 같은 증권관련 거래를 금지하였음.
- 이는 최근 중국 내에서 증시를 통해 조달된 자금이 유용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일반 주주들의 상장기업에 대한 신뢰감이 크게 실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.

■ 이러한 IPO 허용을 배경으로 중국 내 자산규모 2위 은행인 중국은행(Bank of China)은 지난 6월 1일 홍콩증권거래소를 통해 IPO를 실시하였음.

- 이번 IPO를 통해 중국은행은 사상 최대 규모의 주식공모 규모인 총 자본금의 약 10.5%에 달하는 약 97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하였음.
-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세와 함께 은행산업의 성장세 역시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인 및 기관투자가들의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, 개인투자자들의 공모 경쟁률이 76:1에 달했으며 기관투자가들은 공모금액의 약 12배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하였음.
- 금년중 중국 내 은행들의 IPO를 통한 자금조달액 규모는 250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, 조만간 중국공상은행(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)도 약 100억달러 규모의 신규주식상장을 추진할 예정임.

■ 또한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22일 비유통주 문제에 대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주식교환방식의 인수합병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인수합병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표하였음.

- 동 개정안으로 인해 주식교환을 통한 인수합병이 가능해졌음은 물론 정부의 인수합병에 대한 승인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향후 중국 내 인수합병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주식시장의 유동성 확대 및 비유통주의 유통주 전환이 한층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.
-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업은 금융기관을 통해 인수합병 대상기업의 주식을 매입 · 관리하도록 규정하여 금융기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인수합병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들도 마련되었음.

■ 이외에도 금년 8월중에는 외국인 기관투자가들에게 선물시장을 개방할 계획으로 있는 등 향후 중국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움직임은 한층 가속화될 전망임.